

이슬람의 멸망과 하나님의 영광

성경말씀: 시83:1-18

지난 주, 하늘의 모습 변화, 날씨 예측, 우리가 사는 시대: 1. 이스라엘, 2. 이슬람 국가들, 3. 거주 경계의 붕괴, 4. 빈부의 양극화, 5. 교황의 종교 통합, 6. 적그리스도의 도래
예수님의 책망(눅12:56):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면서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위선자. 바르게 시대를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시리아 난민 사태, 유럽 및 미국 정복 계획, 이슬람이 결국 세계를 통치하지 않겠는가?” 우려 곳곳에서 IS 테러— 자카르타 테러, 한국 모든 공항 폭탄, 우려로 공포와 걱정, 그러나 아니다!
목사의 책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리는 것(행20:27),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음(특히 예언). 다른 책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이슬람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함, 부흥 이후에 완전한 몰락, <이슬람의 멸망과 하나님의 영광>

아삽의 시편

시편은 총 150편, 아삽의 시편(50, 73-83편, 총 12편), 다윗 당시 세 명의 주요 음악가: 헤만, 여두둔, 그리고 아삽, 그는 주로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를 담은 시를 썼다. 특히 선민의 시편과 고통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함(신4:27-31): 우상숭배, 패망, 흠어짐, 귀환
다니엘을 통해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형상, 세상 왕국의 변천,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롬, 그리고 훌쩍 뛰어 넘어서 적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 하늘의 왕국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로 이방인들의 때(눅21:24),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멸절이 모든 배경의 뒤에는 마귀가 있다: 여자의 씨(창3:15),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유다 지파, 다윗, 다윗의 씨, 결국 여자의 씨는 이스라엘을 통해 오기에 마귀가 이스라엘을 심히 미워함
히틀러의 유대인 박멸 600만 명, 그러나 7년의 후반부 3년 반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고난의 때(마24:21, 단12:1, 계12장), 그 땅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정제됨(슌13:8-9).
이스라엘의 문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으나 민족 전체가 그분을 배척함. 예수님의 황폐함 예언(마23:38). 결국 쫓겨 다니다가 1948년 부활, 주변 국가들의 시기 질투, 여전히 불신, 주변국가들의 압박, 다니엘의 70이레 중 마지막 한 이레 7년(단9:27), 적그리스도와 언약, 그의 배반(살후2:4), 이스라엘의 황급함(계12)
이스라엘을 압박하려면 누군가 마귀를 도와야 한다. 에스겔서 38장: 러시아,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 특히 이스라엘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시83은 아삽이 대언자로 7년 환난기의 후반부 3년 반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이슬람 국가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 준다.

시편 83편에 묘사된 예언 사건은 다윗의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어떤 주석가들은 여호사밧의 통치 시대에 성취, 예레미야 시대, 주전 170년경의 마카비 시대 예언 성취
그러나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되면서 성취된다(18). 다른 때에는 불가능

이슬람과 이스라엘

<재림과 휴거,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모리스 박사의 책에 발췌
오늘날 특별히 눈에 띄는 이상한 현상들 중 하나는 모든 이슬람교도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를 몹시 증오한다는 것이다.

1.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둘 다 탁월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창세기에 나타난 그분의 계시를 믿고 있다.
2. 이 두 집단은 모두 자신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다.
3.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모세와 다윗을 통해 기록된 것같이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며 반면에 이슬람교도들은 자신들이 대언자 무함마드에게 나타난 대로 이스마엘을 통한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
4. 아랍권과 비(非)아랍권에 있는 모든 이슬람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권능이 있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전능자 알라 신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며 사랑이

넘치는 성품을 갖고 있다.

5. 알라는 아들이 없다. 거짓 신이다.

물론 이스라엘의 성경은 주후 600년경 모하메드와 이슬람교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국 이슬람 세계를 이루게 될 중동 사람들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할 것임을 밝히 보여 주고 있다. 성경의 이런 구절들은 특성상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83편이다.

1. 아삽의 호소(1-8) “주여, 환난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옵소서”

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1)

주변 국가들의 소동, 머리를 들고 대들(2)

이들의 주장(3-4): 이스라엘을 끊어버려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임으리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함(5)

이들의 정체: 이스라엘 주변의 10개의 이슬람 민족들(6-8)

1. 에돔(아랍의 형 에서), 2. 이스마엘(이삭의 형), 3과 4. 모압과 암몬(룻의 후손), 5. 하갈(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족속), 6. 그발(역시 아랍 관련 족속), 7. 아말렉(에서의 손자, 창36:12), 8. 블레셋(지중해 섬 민족, 가나안에 들어와 이스라엘을 괴롭힘,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9. 두로(에스라엘 위의 해변 도시), 10. 앗수르(아시리아).

아삽은 반(反)이스라엘 연합을 그 당시 존재하는 민족들의 이름으로 기술했다.

이 민족들의 이름을 현재의 국가들로 바꾸어서 해석해야만 한다.

이 국가들은 다윗 왕 시대에 존재한 이스라엘의 근접 국들이다.

동쪽에는 에돔, 암몬, 모압(지금의 요르단)

남동쪽에는 이스마엘과 하갈, 남서쪽에는 아말렉, 이곳은 부분적으로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에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블레셋

북쪽에는 페니키아의 도시 두로와 그발(지금의 레바논)

북동쪽에는 아시리아 제국을 이룩했던 앗수르가 있었다(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수세기를 거쳐 오는 동안 이 지역 사람들과 그 외의 다른 중동지역 사람들 간에 서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고대 민족/국가들과 그에 해당하는 현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일대일로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피가 섞여서 그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옛 원수들이 현재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직접적인 조상이라는 것이다.

아삽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즉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땅으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때를 예언하였다.

그때는 정확히 후반부 3년 반, 지금의 상황은 이 절정의 때를 향해 나가고 있다. 성경은 진리이다.

이슬람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 등에서 도움을 받아 줄곧 힘을 키워왔다(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집트).

아삽의 예언 요약(1-8절)

- a. 따라서 마지막 3년 반에 이스라엘이 러시아와 유럽이 함께하는 이슬람권 국가들과의 대전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주여, 침묵하지 마소서”
- b.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2. “주여, 과거에 하신 대로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소서”(9-15)

1.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족속에게 하신 것처럼(9), 샯6-8장,

샯7:12,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 자손의 수가 메두기같이 많음, 기드온의 300명이 이들을 무찌름
(135,00명 멸절, 샯8:12)

2.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에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처럼(9), 샯4-5장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대장 시스라, 철병거 900대로 압박함,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에게
굴복함, 과거의 역사는 앞날에 있을 일을 보여 주는 예표

3. 11절의 오렙과 스엠펬은 미디안의 통치자,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

4. 이들의 주장: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자(12)
5.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간섭하실 것이다.
태풍과 폭풍이 있을 것이고(15) 산에는 큰불이 날것이다(14). 지푸라기같이 된다.
6. 그로 인해 이슬람 군대는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놀라게 될 것이다'(15-17절).

3. “주여, 주님의 이름만 홀로 영광을 받기 원하나이다”(18)

바로 이때에 살아남은 자들은 결국 알라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18).

여호와, 테트라그라마톤, 신성 4자음, JHWH, 예호바, 여호와, 야훼 No!

뜻, 스스로 존재하는 분, I AM THAT I AM(출3:14), 불변하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이 여호와가 올리브 산에 강림하신다(슌14:4), 바로 이분이 곧 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다른 잡신들은 다 물러간다.

렘10:10-16 설명,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하는 신을 다 가라.

알라, 부처, 무함마드, 공자, 안상홍, 이만희, 교황 누구든 다 사라져라. 오직 하나님만 서신다.

바로 이때에 단2:44(하늘의 왕국), 슌14:16(장막절을 지킨다)

결론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다(여기서든 영원에서든)

우리의 간구(16):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그 결과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이것을 알리는 것이 기독교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성경 말씀대로 된다. 이슬람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국 전체가 멸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화평의 시대가 이 땅에 온다.

우리는 천년 왕국의 도래 약 7년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 때 휴거받아 주님과 함께 내려와 영원무궁토록 다스린다. 환난기에 안 들어간다. 인류의 역사를 주님이 쥐고 계신다.

정신 차리고 지금 해야 할 일(나, 가정, 사회, 교회 등) 미루지 말고 하나 하나 하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인류에 대한 유일하고도 정확한 계획이다.